15. 학교생활

열다섯 번째는 학교에 거처함이니, 배우는 자가 학교에 있을 때에는 모든 행동거지를 일체 학령에 따라야 한다.

글도 읽고 저술도 하며 식후에는 잠깐 동안 거닐어 정신을 맑게 하고 돌아와서 학업을 익히고 저녁 먹은 뒤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여럿이 함께 있을 때에는 반드시 강론으로 견문을 넓히고 예법에 맞는 몸가짐으로써 가지런히 정돈하고 엄숙해야 한다.

만일 스승이 학교에 있으면 읍[25]을 한 뒤에 질문하며 마음을 비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늘 잊지 말아야 하며 무익한 글을 질문하여 마음과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

25 읍(揖) : 인사하는 예(禮)의 하나로,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린다.

해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공통적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찌나 잠이 쏟아지는지요. 이불 밖으로 몸을 끄집어내는 일이 치과에 가는 것처럼 두렵고 힘듭니다. 일어나라는 재촉을 듣고 나서도 한참 만에 겨우 일어납니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면 어느 집이나 아침마다 고성이 나오곤 했습니다. 엄마와 자녀의 아침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토요일에는 일찍 일어납니다. 금요일 저녁에 늦게 잤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유가 뭘까요? 학교에 가기 싫기 때문입니다. 가기 싫은 학교를 억지로 가니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고역입니다.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서야 겨우 이불에서 늘어진 몸을 끄집어 올립니다. 토요일은 학교에 가지 않으니 아침부터 부산을 떱니다. 오늘 하루 신나게 놀 궁리를 하면서요. 소풍 가는 날이면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육을 어떻게 개념 정의하느냐에 따라 학교의 외연이 변합니다. 교육을 어떤 영향을 미쳐 변화를 일으키려는 노력 일반으로 보면 학교의 외연은 넓어집니다. 일정한 인간에게 특정한 영향을 미쳐 특정한 변화를 일으키려는 의식적이고 자각적 노력으로 좁게 보

면 학교 개념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후자가 우리가 통상 말하는 학교에 해당합니다.

가정, 지역사회, 직장 등 기본적인 생활단위에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가르칠 때 그 단위를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그 생활단위의 주요 기능이 아니라 부차적 기능입니다.

회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회사는 가장 효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능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신입 사원에게는 회사 업무를 교육하고 기존 사원은 재교육 등을 통해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교육은 회사의 이윤추구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기능 중 하나로 부차적입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을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기구를 만듭니다. 교육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을 두어 사회구성원을 교육합니다. 이 제도 단위를 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원시시대 교육은 생활 현장에서 전문화와 조직화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생활 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 사회가 발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이 증가하면서 생활 단위만으로는 지식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차차 문화유산을 전달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교육기관으로서 학교가 등장합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학교는 처음에는 지배계층의 교육을 위하

여 만들어진 기관이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통교육은 근대 이후에 등장합니다. 노동에 종사하는 계층은 여전히 가정 안에서 농업, 공업, 어업, 목축업 등 직업적 기술을 전수하여 왔습니다.

생활 활동에서 여유가 있는 지배계층이 생활의 필요에 따라 학교를 발생시켰으며, 그들은 그 희소가치 때문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로써 종교, 정치, 경제 등 생활의 전반에 걸쳐 사회적 우월성을 지속해 갔습니다.

학교는 그 발생 초기에 있어서는 특권적 지배계층의 산물이었고 또한 전유물이었습니다. 국민교육 제도는 민족국가의 탄생과 궤를 같이하여 탄생한 근대의 산물입니다.

영조 때에 성균관 유생이었던 윤기가 남긴 『반중잡영』과 성균관 대사성이었던 민중현이 남긴 『태학지』 등에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들의 학교생활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성균관은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소과에 합격하거나 조상의 음덕을 통해 입학 한 유생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관료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고 임금과 조정의 관심이 그만큼 높았습니다.

대과 초시 중에 반시가 있습니다. 성균관 유생만을 대상으로 비천당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비천당은 명륜당 옆에 있습니다. 친숙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특전입니다.

성균관의 학생회장 격인 장의가 출타했다가 돌아올 때의 모습입니다. 장의가 성균관으로 돌아오면 수복들이 탕평비 앞 다리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공손히 맞아 절하고 모시고 들어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동재와 서재의 대표 격인 방색장들도 지팡이를 짚고 앞길을 인도하였으며, 재직 7-8명도 무리지어 따랐습니다. 당시 벼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물렀거라 벽제하며 후미에서 호위하는 일은 성균관에 장의가 들어올 때뿐이었습니다.

동재 출입문으로 들어가고 나면 성균관 유생들도 유건을 고쳐 쓰고 창문을 닫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장의가 장의방에 도착해야 비로소 재직들이 길게 외치는 창문을 여시오 소리에 맞춰 창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예비 관료들인 성균관 유생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국가에서 성균관 장의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높은 대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균관 유생들도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자신들의 대표인 장의에게 철저히 복종하며,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권당처럼 동맹 휴학을 통해 유생들은 집단적으로 실력 행사를 펼쳤습니다. 성균관 주관으로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예비 관료인 성균관 유생들이 올린 상소를 각별하게 대했습니다.

상소를 올리게 되면, 상소를 내는 소두가 성균관을 나서기 전에 사환들이 아방사령의 명을 받아 먼저 도로를 청소했습니다. 하인들은 길가 주민들을 시켜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뿌리게 했습니다.

성균관의 노비인 반노를 앞세우고 소두가 상소문이 담긴 소함을 가지고 길 가운데로 가면 장의와 상소에 관여한 소임들이 그 뒤를 따르고 유생들이 뒤에서 반열대로 줄지어 따라갔습니다. 사학의 유생들도 생원과 진사의 뒤에 서서 장색을 앞세우고 각 학부의 노비로 하여금 청금록(명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유생들은 궐문 밖에 도착하여 상소하게 되는데, 비록 지체가 높은 대신이라고 하더라도 그 앞을 말을 타고 그냥 지나가거나 예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왕의 하답이 내려올 때까지 이동식당을 개설하고 거기서 원점을 얻기 위한 도기(출석부 날인)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균관 서북편 언덕 위에 전망대 역할을 하는 망향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집을 떠나온 지 오래되는 유생들이 매월 9일마다 창문을 열어 그곳을 올려다보고는 이로 인해 향수가 일어 술을 마시며 마음을 달래는 습속이 있었습니다.

성종 때부터 성균관에는 '사태학'[26] 세 글자와 북숭아 무늬를 새긴 은잔 2개가 있었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이 초하루와 보름으로 공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석채 후 음복할 적에 동쪽과 서쪽의 식당에서 각각 그 잔으로 술을 마시는 습속이 있었습니다. 이 은잔을 하사한 이유는 성균관 유생 상호간에 화목을 도모하라는 뜻이었다고

---

26 賜太學: 태학에 하사한다

합니다.

술자리는 서먹서먹했던 사이, 의견이 맞지 않아 틀어진 사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이 등을 이어주는 오작교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한 잔 술을 마시며 여유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살짝 드러내기도 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유생의 말을 받아들이며 동학 사이의 정분을 깊이 나누었을 것입니다.

성균관 유생들은 교제나 고담준론을 펴기 위해 망향대나 그 아래의 벽송정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향수를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시국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예비 관료로서 성균관 유생들은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데는 늘 조심했지만 말입니다.

학교는 예나 지금이나 학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숙학교는 생활과 공부하는 장소가 일치하기 때문에 학칙이 더욱 요구됩니다. 율곡이 '배우는 자가 학교에 있을 때에는 모든 행동거지를 일체 학령에 따라야 한다.' 했습니다.

학교생활은 대체로 "글도 읽고 저술도 하며 식후에는 잠깐 동안 거닐어 정신을 맑게 하고 돌아와서 학업을 익히고 저녁 먹은 뒤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했습니다. 저술은 작문 공부를 일컫습니다. 과거는 주관식 시험입니다. 생각을 요령 있게 표현하는 작문은 필수입니다.

유생들이 학교 생활하는 자세를 율곡은 "여럿이 함께 있을 때에

는 반드시 강론으로 견문을 넓히고 예법에 맞는 몸가짐으로써 가지런히 정돈하고 엄숙해야 한다." 했습니다. 옛사람은 공부를 견문을 넓히는 지식 공부에만 치중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는 것을 학문의 목표로 표방하여 예법으로 몸가짐을 단속하였습니다.

유생들이 배우는 자세를 율곡이 "질문하며 마음을 비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늘 잊지 말아야 하며 무익한 글을 질문하여 마음과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배움은 채우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 선입견이 가득 차 있으면 채울 공간이 없습니다. 고집이 세면 배웠더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에 봐야 할 책이 많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 한문 원전 음미하기

學者居學宮時. 凡擧止. 一依學令.
학 자 거 학 궁 시 범 거 지 일 의 학 령

或讀書. 或制述. 食後暫爾游泳. 舒暢精神. 還習所業.
혹 독 서 혹 제 술 식 후 잠 이 유 영 서 창 정 신 환 습 소 업

夕食後亦然. 群居必講論相長. 攝以威儀. 整齊嚴肅.
석 식 후 역 연 군 거 필 강 론 상 장 섭 이 위 의 정 제 엄 숙

배우는 자가 학교에 있을 때에는 모든 행동거지를 일체 학령에 따라야 한다. 글도 읽고 저술도 하며 식후에는 잠깐 동안 거닐어 정신을 맑게 하고 돌아와서 학업을 익히고 저녁 먹은 뒤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여럿이 함께 있을 때에는 반드시 강론으로 견문을 넓히고 예법에 맞는 몸가짐으로써 가지런히 정돈하고 엄숙해야 한다.

居: 거처하다/學宮: 학교/時: ~할 때/凡: 무릇, 모든/擧止: 행동거지/一: 한결같이/依: 의지다하/學令: 교칙/或: 혹/讀書: 책을 읽다/製述: 문장을 짓다/食後: 식사 후에/暫爾: 잠시/游泳: 산책하다/舒暢/ 풀어주다/還: 돌아오다/習: 익히다/所業: 배운 내용/夕食後亦然: 저녁 식사 후에도 또한 그렇게 하다/羣居: 여럿이 함께 거처하다/必: 반드시/講論: 강론하다/相長: 서로 지식이 자라도록 하다/攝: 통괄하다/威儀: 예에 맞는 몸가짐/整齊: 몸과 마음을 정돈하다/嚴肅: 엄숙하다.

若先生在學宮. 則行揖之後. 講問靖益. 虛心受教.
약 선 생 재 학 궁 칙 행 읍 지 후 강 문 정 익 허 심 수 교

佩服周旋. 如無益之書. 不可請問. 往用心力.
패 복 주 선 여 무 익 지 서 불 가 청 문 왕 용 심 역

만일 스승이 학교에 있으면 읍을 한 뒤에 질문하며 마음을 비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늘 잊지 말아야 하며 무익한 글을 질문하여 마음과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若: 만약/先生在學宮: 선생이 학교에 계시다/則: ~면/行揖: 읍을 하다/講問: 강론하며 묻다/靖益: 가르침을 청하다다/虛心: 마음을 비우다/受教: 가르침을 받다/佩服: 마음에 받들다/周旋: 행동을 하다/如: 가령/無益之書: 도움이 안 되는 책/不可: ~해서는 안 된다/請問: 가르침을 청하다/枉用心力: 마음과 힘을 허비하다